

## 고등학생이 지각한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전 준 형

전주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안 하 안<sup>†</sup>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갭’ 현상을 확인하고,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개인요인(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과 환경요인(학생-교사에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3개교에 재학 중인 일반계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적불편감 척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호소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각 문제에 대한 도움추구의도를 재질문하여, 고등학교 학교상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 갭 현상의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 및 성차에 따라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운영 및 홍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개인-환경요인이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적불편감이 가장 컸고, 사회적낙인, 상담유용성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학생-교사에착과 Wee클래스환경은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Wee클래스 학교상담에 대한 도움추구의도를 높이고 학교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영향요인, 고등학생

\* 본 원고는 전준형(2022)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하안,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54, Tel: 02-6964-7059, E-mail: hayan@sgcp.ac.kr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개인의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을 넘어 자살, 학교폭력, 비행 및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등교조차 할 수 없었던 혼란의 시기를 보낸 청소년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또래,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교육부, 2022).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박지민, 2019; 서현주, 최형아, 2017), 코로나로 인한 일상 전반의 우울감은 특히 대학입시 준비로 학업적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김민수, 2022;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 더불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감과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고, 주관적 행복감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주목해 볼 때(교육부, 질병관리청, 2021; 김우리, 2021; 임채영 등, 2016; 정예지, 2022),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은 심리정서적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국가적 안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학교 내 Wee클래스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전문적 도움을 찾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점검함으로써 Wee클래스 학교 상담이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을 돌보고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정서적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체계적인 학교 안전관리통합시스템 ‘위(Wee)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위(Wee)프로젝트는 지역사회-교육청-학교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며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 교육기관으로 상담을 포함한 인성,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차 안전망인 Wee센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며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과 Wee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평가를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는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이 겪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인적 발달을 조력하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연계 기관들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3년 기준, Wee스쿨 17개, Wee센터 239개, Wee클래스 8,863개가 설치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이러한 기관의 양적 증가는 통합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체계적 안전망이 청소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현 시점에서, 이들 연계 기관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Wee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및 이

용률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50%가 넘는 학생들이 Wee클래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용률 역시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예, 김유리, 2021; 민들레, 2009; 이선희, 2016; 이진아, 2018)이 Wee클래스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에 관한 질적 측면의 점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Wee클래스 인지율 및 이용률에 관한 이 같은 보고들은, 고등학생들이 심각한 심리적 불편감을 겪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들(예, 김유리, 2021; 임채영 등, 2016; 정예지, 2022)과 배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Wee클래스 제도의 정착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학교 내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낮은 인식과 저조한 이용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상담 현장에서 ‘서비스 갭(service gap)’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 갭은 한 개인이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불편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에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도 실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Kushner & Sher, 1991). 전문적 도움추구란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기질 및 심리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전문가에게 심리적인 불편감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박준호, 2008; 신연희, 2004; 장미경, 2014; 조류하, 2020), 학교 장면에서는 심리적 불편감을 겪는 청소년들이 교내 Wee클래스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청소년들의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그간 전문 상담에 대한 심리적 거

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움추구와 관련된 몇 가지 변인들을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거나(예, 강연미, 김희수, 2016; 김주미, 유성경, 2002; 장미경, 2012),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도움추구에 긍/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예, 김지은, 2016; 이지원, 남숙경, 2016; 장미경, 2014). 이들 선행연구에서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적, 심리적 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상담실 공간이나 접근성 등 청소년 상담에서 환경적, 물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 학교 밖 상담 기관(예,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개인상담소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교라는 생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미치는 특유한 영향을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교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효과요인은 일반상담과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학교 장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상담의 효과요인 연구가 2015년에 진행된 바 있다(유정이 등, 201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받아 본 학생이 아닌, 상담을 수행한 학교상담자들의 관점을 조사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을 추론하기에는 간극이 있다. 더욱이, 각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 학교상담사들을 함께 조사했을 뿐 아니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은 것은 어려웠던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요청과정에서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이보미, 최한

나, 2015), 총 20명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청소년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심리적 불편감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 아니기에, 연구 설계와 분석에 있어 정교함이 아쉽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학생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역시 시급한 상황이지만,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예, 김진아, 오인수, 2015; 김태연, 신효정, 2020; 엄주희, 2018; 오주연, 2019; 정미애, 2017; 최병섭 등, 2021)도 주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에게 초점을 맞춰, 고등학생들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어떠한 독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상담에서의 상담개입은 전문상담교사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하여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가까이에서 지지하고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예, 교사, 학부모)에게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다 체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윤운영, 유금란, 2013). 또한 학급별로 집단상담이나 심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방상담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진다(강진령, 2016).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의 독특성과 학교상담이 갖는 이점은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학교장면에서의 청소년의 도움추구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위(Wee)프로젝트가 실시

되면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점차 확대된 이후의 학교상담 여건은 과도기 때(2010년대 중후반)의 학교상담 환경과 크게 달라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초점을 맞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최신했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이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자발적으로 찾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경험하는 정신적 압박과 부정적인 정서를 지각하는 심각성의 정도인 '심리적 불편감'(김주미, 유성경, 2002; 임수진, 2007)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김주미, 유성경, 2002),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각되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신연희, 2004). Gross와 McMullen(1982)은 전문적 도움추구 과정으로 문제지각단계, 도움추구결정단계, 전략수행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단계로 제시한 문제지각 단계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 심리, 사회적 상태가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 있음을 지각하는 단계이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자체의 심각성과 별개로, 이를 심리적인 불편감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은 학생들이 학교상담을 찾게 되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서, 도움추구결정단계는 개인이 지각한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추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는 손익을 비교하여 도

움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이다. 즉, '상담에 대한 유용성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개인이 상담자에게 자기노출을 함으로써 얻는 결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의미 있게 지각하느냐와 관련된다(신연희, 2004; Omarzu, 2000). 상담에 대한 효과성, 유용성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예, 민들레, 2009; 신연희, 2004; 이해동, 2020; 정주리 등,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찾는 학생들 역시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야 상담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또한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요인으로,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은밀한 사적 정보를 타인에게 의식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인 '자기은폐'(Larson & Chastain, 1990)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엇갈리게 나타나는데,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예, 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2004; 장진이, 2001)가 있는 반면, 이와 상이하게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의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예, 양대회, 2010; 유영란, 이지연, 2006; 임수진, 노안영, 2009)도 있다. 이는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추구 간 관련성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라는 장소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자기노출이 요구되는 상담이 사적인 부분을 감

추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자기은폐 경향과 연관되어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를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설정하고,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Wee클래스 학교상담은 상담을 받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지적인 관계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인 사회적 지지망 변인이 지속적으로 탐색 되어 왔다(예, 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2004; 조류하, 2020). 같은 맥락으로 장미경(2014)도 사회망 지향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망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적 지지망을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면, 학생과 교사 간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상담의 특성상 호출상담이 많고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토대로, '학생과 담임교사 간 애착'이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학생-교사 간 애착 안전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에 대한 유용성 기대가 높고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최병섭 등, 2021), 학생-교사 애착이 또래애착보다 전문적 도움추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건영, 2018)을 밝힌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 또는 집단에,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일컫는다(Corrigan, 2004).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인 사회적 낙인(Corrigan, 2004)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을 찾는 것을 피하게 된다(강유선, 2016; 박지윤, 2011; 조류하, 2020; 조현주 등, 2008). Wee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학교 내에서 진행된다는 독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십대 청소년들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환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Wee클래스에 대한 접근이나 학교상담 도움추구를 회피하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진 바 있다(예, 고현희, 2013; 김인숙, 2004; 홍혜영, 2006). 또한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주연,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교 구성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Wee클래스에의 도움추구는 외부 타기관에의 도움추구에 비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Wee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용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예, 김영진, 2013; 민들레, 2009; 오주연, 2019; 이재형, 정진주, 2010)에서, Wee클래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인 우호감이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Wee클래스의 내부구조(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벽체의 색상, 조명 설치 등), 공간 배치(출입 시 비밀보장이 가능한 위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지의 유무, 방음 유무 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재형, 정진주, 2010)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물리적 환경, 즉 ‘Wee클래스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면에서 학생-교사에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을 Wee클래스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설정하고, 개인요인과 함께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동을 예측하는 종속변인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가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신연희, 2004; 이민지, 손은정, 2007). 즉, 개인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Deane & Todd, 1996) 태도가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실제 도움추구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 Wee클래스 학교상담에 초점을 맞춰 종속변인을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로 구체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이전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전문적 도움추구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예, 강연미, 김희수, 2016; 남숙경, 이상민, 2012; Vogel & Wester, 2003)와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예, 박지윤, 2011)가 혼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되,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내에 설치된 Wee클래스에서의 상담 경험에 한정하여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와 관련된 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함에 있어 남녀 성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예, 박지윤 2011; 신연희, 2004; 장진이 2001)에 주목하여, 성별을 기준으로 개인 및 환경요인과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초점을 맞춰 최근 심리적불편감을 경험한 학생들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를 조사하여 (1) 코로나 이후 단위학교 Wee클래스 학교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갭을 확인하고, (2)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 성별에 따른 도움추구 영향요인(개인요인/환경요인) 및 도움추구의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 (3)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개인요인(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과 환경요인(학생-교사애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살펴보므로써,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Wee클래스 학교상담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Wee클래스 학교상담에서 ‘서비스 갭’ 현상이 나타나는가? 즉, 고등학생의 심리적불편감 유형별 도움추구의도 비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 성별에 따라 도움추구 영향요인(개인요인/환경요인) 및 도움추구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생 개인요인(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이 고등학생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학교 장면의 환경요인(학생-교사애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이 고등학생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중 남녀공학교, 남학교, 여학교를 각 1개교씩, 총 3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학교는 각각 세 개의 다른 구에 위치하였으며, 사전에 각 학교 담당자를 통해 교내에 Wee클래스가 설치·운영되어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을 확

인한 후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 진행과 관련하여 학교,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구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허락을 얻은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방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한 후 설문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문 도중이나 이후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였다. 추후 설문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도와줄 교사가 연구자와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자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학생들이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을 정리하여 연구안내문, 동의서,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특히, 문항 내용 중 상담 관련 질문(예, 상담경험이나 상담의도를 묻는 질문)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상담서비스 중에서 ‘현재 재학 중인 Wee클래스 학교상담’에만 한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학교에 총 1,000부를 배부하였으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번호로만 응답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모두 합하여 전체 문항의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83부는 제외되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취지가 ‘심리적불편감을 최근 경험한 학생들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연구이기에 심리적불편감을 물어보는 모

든 문항에 대해서 심리적불편감이 ‘없다’라고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8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한 대상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 433명(48.60%), 여학생 458명(51.40%)이었고,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449명(50.39%), 2학년 442명(49.61%)이었다. 또한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 경험 유무를 확인한 결과,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이 82명(9.20%), ‘없는’ 학생이 809명(90.80%)으로 조사되었다.

### 측정 도구

####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sh 등(1975)이 개발하고, Vogel과 Wester(2003)가 4점 척도로 수정, 신연희(2004)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상담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개 어려움의 종류를 항목으로 제시한 후 해당 문제로 심리상담을 받으려 할 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각 항목은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항목 점수의 합산이 높을수록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17개 항목을 기반으로 유사한 항목을 합치거나(예, 대인관계문제와 교우관계문제 2개로 되어있던 항목들을 ‘대인관계문제/교우관계문제’로 1개 항목으로 수정),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화하여(예, ‘수면곤란’이라고만 되어있던 항목을 ‘수면문제(수면곤란, 수면과다)’로 수정) 학생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선행

연구(김은하 등, 2021)를 참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 등)’ 1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총 15개의 항목이 구성되었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14개 항목을 확정하였다(‘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항목만 별도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즉 단일 요인으로 묶이지 않아 삭제함). 최종 14개 항목의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78.50%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은 모두 .78 이상이었다. 해당 척도는 상담의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예, 강연미, 김희수, 2016; 박준호, 2008; 신연희, 2004; 오주연, 2019)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83~.92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 도움추구 개인요인

##### 심리적불편감

심리적불편감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김광일 등, 1984)와 상담의도 척도(ISCI)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를 측정하기 전,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심리적불편감의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목록과 동일하게 14개 어려움의 종류를 제시한 후, 모든 항목에 대해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어려움의 심각성 정도’를 각각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SCL-90-R)에서 Likert척도로 평정한 것과 같이,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심리적불편감 척도’에서 제시한 14개 어려움의 종류와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척도의 문항 목록을 동일하게 구성한 이유는 도움추구의도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불편감 척도에서 우울증 ‘약간 있다(1점)’ 이상을 응답한 학생이 동일한 문제, 즉 우울증으로 Wee클래스 학교상담에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답하게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4개 항목의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0.35%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은 모두 .49 이상이었다.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 상담유용성기대

상담유용성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Vogel과 Wester(2003)가 개발하고 신연희(2004)가 번안한 노출 기대 척도(Disclosure Expectations Scale: DES)의 하위요인(위험기대, 유용성기대) 중 ‘유용성기대’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유용성기대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사적인 심리 상태를 상담자에게 이야기하여 스트레스 경감에 얼마나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문항의 점수 합산이 높을수록 상담유용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만약 나에게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그 문제를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가 있다. 상담유용성기대는 사회적낙인과 부적상관( $r=-.20$ )을 보였고(손경진, 2018), 학생-교사에착과 정적상관( $r=.73$ )을 보였으며(이해동, 2000), 상담에 대한 의도를 유

의하게 설명하였다( $\beta=.17, p<.01$ ; 신연희, 2004). 해당 척도는 상담유용성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으며(예, 손경진, 2018; 신연희, 2004; 이해동, 2000; Vogel & Wester, 2003), 선행연구들에서는 내적합치도가 .74~.95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자기은폐

자기은폐를 측정하기 위해 Larson과 Chastain(1990)이 개발하고, 장진이(2001)가 번안한 것을 신연희(2004)가 재번역한 자기은폐 척도(Self Concealment Scale: S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은폐와 비밀유지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5문항씩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며, 문항의 점수 합산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추는 편이다’(자기은폐),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중요한 비밀이 있다’(비밀유지)가 있다. 원개발자인 Larson과 Chastain(199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1$ 이었다. 해당 척도는 자기은폐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예, 김주미, 유성경, 2002; 김지은, 2016; 신연희, 2004)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83~.92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도움추구 환경요인

#### 학생-교사애착

학생-교사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백,

김남희(2009)가 개발 타당화한 학생-교사 애착 관계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A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용성, 신뢰성, 접근가능성, 민감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며, 문항의 점수 합산이 높을수록 학생-교사 간 안전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담임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가 있다. 김종백과 김남희(2009)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r=.90$ ), 공인타당도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해당 척도는 학생-교사애착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예, 김남희, 김종백 2011; 서은애, 2018)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89~.93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사회적낙인

사회적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Komiya 등(2000)이 개발하고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안한 사회적 낙인 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SSRPH)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한다. 문항의 점수 합산이 높을수록 사회적낙인에 대한 높은 인식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 ‘정서적 문제 혹은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 상담(심리치료)을 받는 것은 개인적 약함이나 불충분함의 표시이다’가 있다.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단일 요인이 전체 사회적낙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값은 63.7%이었

다. 사회적낙인은 상담추구행동과 남학생( $r = -.56, p < .01$ ), 여학생( $r = -.49, p < .01$ )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조류하, 2020), 학교상담추구태도와도 부적상관( $r = -.31, p < .01$ )을 보였다(김진아, 오인수, 2015). 해당 척도는 사회적낙인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예, 김진아, 오인수, 2015; 이민지, 손은정, 2007; 조류하, 2020)에 사용되어왔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78 ~ .88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 Wee클래스환경

Wee클래스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상근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신정민(2013)이 재구성하고 김미란(2014)이 수정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이며 장소 편리성, 비밀보장, 편안한 분위기, 운영시간 편리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문항의 점수 합산이 높을수록 Wee클래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Wee클래스’를 떠올리면서 응답하도록 지시어를 추가하였고, 문항마다 ‘Wee클래스(학교상담실)’를 명시하였다. 또한 기 척도에는 Wee클래스가 상담공간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상담을 중심으로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운영시간 편리성’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4개 문항이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

들의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75.89%로 나타났다으며, 요인부하량은 모두 .82 이상이였다. 해당 척도는 Wee클래스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어왔으며(예, 김미란, 2014; 신정민, 2013; 오주연, 2019),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78 ~ .90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고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과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별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 성별(학교유형 포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 $N=891$ )

	1	2	3	4	5	6	7
	심리적 불편감	상담유용성 기대	자기은폐	학생-교사 애착	사회적 낙인	Wee클래스 환경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1	-						
2	.04	-					
3	.38**	-.21**	-				
4	.01	.49**	-.26**	-			
5	.21**	-.33**	.39**	-.35**	-		
6	.00	.58**	-.25**	.55**	-.42**	-	
7	.41**	.37**	-.03	.34**	-.24**	.36**	-
<i>M</i>	1.09	2.88	2.71	2.79	2.01	3.44	1.82
<i>SD</i>	.73	1.08	1.02	.66	.72	1.07	.73
왜도	.79	-.14	.16	-.60	.59	-.39	.46
첨도	.13	-.80	-.84	.19	-.06	-.66	-.99

\*\* $p < .01$ .

왜도, 첨도,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와 심리적불편감( $r=.41, p<.01$ ), 상담유용성기대( $r=.37, p<.01$ ), 학생-교사애착( $r=.34, p<.01$ ), Wee클래스환경( $r=.36, p<.01$ )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낙인과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r=-.24, p<.01$ )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은폐와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2 이하, 첨도 절대값은 7 이하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 기준(Curran et al., 1996)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심리적불편감 유형별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심리적불편감에 따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를 살펴보면,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문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891명 고등학생 중에서 128명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55명, 즉 42.97%가 고등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갈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진로 및 직업 선택 문제에 891명 전체 학생 중에서 750명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291명, 38.80%가 도움추구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약물 복용 문제는 71명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표 2. 심리적불편감 유형별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긍정 응답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부정 응답	총 계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문제	.78% 1명	42.19% 54명	42.97% 55명	39.84% 51명	17.19% 22명	57.03% 73명	100.00% 128명
진로 및 직업 선택	7.87% 59명	30.93% 232명	38.80% 291명	26.93% 202명	34.27% 257명	61.20% 459명	100.00% 750명
약물 복용 문제	.00% 0명	38.03% 27명	38.03% 27명	28.17% 20명	33.80% 24명	61.97% 44명	100.00% 71명
이성문제 (성문제)	3.04% 10명	34.35% 113명	37.39% 123명	34.95% 115명	27.66% 91명	62.61% 206명	100.00% 329명
우울증	3.07% 13명	31.91% 135명	34.99% 148명	33.57% 142명	31.44% 133명	65.01% 275명	100.00% 423명
학업 문제 (학업 태만, 부진)	4.73% 34명	27.82% 200명	32.55% 234명	27.26% 196명	40.19% 289명	67.45% 485명	100.00% 719명
외로움	2.23% 10명	29.02% 130명	31.25% 140명	29.24% 131명	39.51% 177명	68.75% 308명	100.00% 448명
수면 문제 (수면 곤란, 수면 과다)	3.81% 23명	26.16% 158명	29.97% 181명	27.48% 166명	42.55% 257명	70.03% 423명	100.00% 604명
발표 불안 시험 불안	6.32% 43명	23.38% 159명	29.71% 202명	29.41% 200명	40.88% 278명	70.29% 478명	100.00% 680명
부모님과 의 갈등	2.15% 10명	27.25% 127명	29.40% 137명	29.61% 138명	40.99% 191명	70.60% 329명	100.00% 466명
대인 관계 문제 교우 관계 문제	1.92% 11명	25.96% 149명	27.87% 160명	32.23% 185명	39.90% 229명	72.13% 414명	100.00% 574명
자기 이해 증진	1.49% 7명	25.48% 120명	26.96% 127명	35.24% 166명	37.79% 178명	73.04% 344명	100.00% 471명
열등감	1.06% 5명	25.42% 120명	26.48% 125명	34.96% 165명	38.56% 182명	73.52% 347명	100.00% 472명
외모 고민 (체중 조절 포함)	2.36% 18명	22.38% 171명	24.74% 189명	23.82% 182명	51.44% 393명	75.26% 575명	100.00% 764명

주. 심리적불편감의 증상 정도가 ‘약간 있다’ 이상으로 대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즉, 총계는 각 유형의 심리적불편감을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

※ 백분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움추구의도 ‘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절대아니다’ 각각에 응답한 학생 수 ÷ 심리적 불편감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 × 100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명, 38.03%가 도움추구의도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이성 문제(성문제)는 329명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123명, 37.39%가 도움추구의도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우울증 문제는 응답한 423명의 학생 중에서 148명, 34.99%가 도움추구의도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표 2에서처럼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로 심리적불편감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 설치된 Wee클래스 상담실에 상담받으러 갈 의사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 영역에서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도움 추구 개인-환경요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전체 891명 중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2명(9.20%),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09명(90.80%)으로 조사되었다(표 3).

또한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Wee클래스 상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낙인과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의 경우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t* 값을 제시하였으며, 두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등분산성이 가정되어 등분산을 가정한 *t* 값을 제시하였다. 차이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이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심리적불편감( $t=7.65, p<.001$ )을 많이 호소하며, 높은 자기은폐 성향( $t=8.09, p<.001$ )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낙인( $t=3.72, p<.001$ )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Wee클래스 학교상담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의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2.51, p<.05$ ). 한편,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없는’ 학생은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상담유용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 $t=-3.22, p<.01$ )하고, 학생-

표 3.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 비율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무	전체	$\chi^2$
성별	남	18명 (4.16%)	415명 (95.84%)	433명 (100.00%)	25.67*** (df=1)
	여	64명 (13.97%)	394명 (86.03%)	458명 (100.00%)	
전체	계	82명 (9.20%)	809명 (90.80%)	891명 (100.00%)	

\*\*\*  $p<.001$ .

전준형 · 안하얀 / 고등학생이 지각한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표 4.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 Wee클래스 학교상담도움추구의도 (N=891)

		유		무		t
		M	SD	M	SD	
개인요인	심리적불편감	1.65	.67	1.03	.71	7.65***
	상담유용성기대	2.52	1.11	2.91	1.07	-3.22**
	자기은폐	3.55	1.08	2.63	.97	8.09***
환경요인	학생-교사에착	2.58	.64	2.81	.66	-3.02**
	사회적낙인	2.36	.92	1.97	.69	3.72***
	Wee클래스환경	2.90	1.12	3.50	1.05	-4.88***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1.65	.62	1.83	.74	-2.51*

\*  $p < .05$ . \*\*  $p < .01$ . \*\*\*  $p < .001$ .

교사에착( $t = -3.02$ ,  $p < .01$ )과 Wee클래스환경( $t = -4.88$ ,  $p < .001$ )에 대해서도 더 우호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

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Wee클래스환경 변인은 등분산성이 가정되어 등분산을 가정한  $t$  값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t$  값을 제시하였다.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Wee클래스 상담실에 도움을 추구할 의도가 높고( $t = 9.64$ ,

표 5. 성별에 따른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N=891)

		남		여		t
		M	SD	M	SD	
개인요인	심리적불편감	1.04	.77	1.14	.68	-2.05*
	상담유용성기대	3.12	1.12	2.65	.98	6.58***
	자기은폐	2.53	.96	2.89	1.04	-5.32***
환경요인	학생-교사에착	2.92	.72	2.66	.58	5.79***
	사회적낙인	1.86	.66	2.15	.75	-6.09***
	Wee클래스환경	3.66	1.07	3.23	1.02	6.17***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2.05	.77	1.60	.62	9.64***

\*  $p < .05$ . \*\*\*  $p < .001$ .

$p < .001$ ), 상담유용성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6.58, p < .001$ ). 또한 학생과 교사 간의 애착에 대해서도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 $t = 5.79, p < .001$ )이었으며, Wee클래스환경에 대해서도 더 우호적으로 인식( $t = 6.17, p < .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고등학생은 남자 고등학생보다 심리적불편감( $t = -2.05, p < .05$ )을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더 높은 자기은폐 성향을 가진 것( $t = -5.32, p < .001$ )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도 더 높게 인식( $t = -6.09, p < .001$ )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학교유형이 구분된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간에도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 및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학생-

교사애착,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자기은폐,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  $F$ 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남학교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보다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Welch=25.30,  $p < .001$ )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살펴보면, 심리적불편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담유용성기대(Welch=6.93,  $p < .01$ )와 Wee클래스환경( $F = 8.99, p < .001$ )은 남녀공학교와 남학교가 여학교에 비하여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교사애착(Welch=8.18,  $p < .001$ )은 남학교가 여학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은 반면, 자기은폐( $F = 9.70, p < .001$ )는 여학교가 남녀공학교와 남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낙인의 경우,  $F$ 검정에서는 유의미성이 나타났지만( $F = 3.36, p < .05$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학교유형(성별기준)에 따른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 $N = 891$ )

	남녀공학교(a)		남학교(b)		여학교(c)		$F/Welch$	사후검증
	$M$	$SD$	$M$	$SD$	$M$	$SD$		
개인요인								
심리적불편감	1.05	.72	1.11	.81	1.14	.67	1.58	
상담유용성기대	2.90	1.09	3.08	1.17	2.71	.96	6.93**	a,b>c
자기은폐	2.65	1.01	2.55	.95	2.93	1.04	9.70***	a,b<c
환경요인								
학생-교사애착	2.79	.67	2.94	.77	2.68	.54	8.18***	b>c
사회적낙인	1.98	.69	1.93	.74	2.10	.75	3.36*	
Wee클래스환경	3.46	1.07	3.67	1.09	3.24	1.01	8.99***	a,b>c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1.82	.74	2.09	.78	1.61	.61	25.30***	c<a<b

주. 사후검정: Scheffe, Games Howell.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7.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의 다중회귀분석 (N=891)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t	R <sup>2</sup>	F
	B	SE	β	계수			
(상수)	.78	.14			5.45***		
개인요인	심리적불편감	.45	.03	.45	15.11***	.36	83.75***
	상담유용성기대	.11	.02	.16	4.73***		
	자기은폐	-.02	.02	-.03	-1.05		
환경요인	학생-교사에착	.13	.04	.12	3.54***		
	사회적낙인	-.17	.03	-.17	-5.34***		
	Wee클래스환경	.08	.03	.12	3.13**		

\*\* $p < .01$ . \*\*\* $p < .001$ .

####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이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움추구 개인요인(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과 환경요인(학생-교사에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이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공차한계가 모두 .10 이상이고 VIF 값은 1.21~1.86 사이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 즉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대한 도움추구 개인-환경요인들의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R^2 = .36$ ,  $F = 83.75$ ,  $p < .001$ ). 유의성 검정 결과, 개인요인 중 심리적불편감( $t = 15.11$ ,  $p < .001$ ), 상담유용성기대( $t = 4.73$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자기은폐는 유의하지 않았다. 환경요인 중 학생-교사에착( $t = 3.54$ ,  $p < .001$ ), 사회적낙인( $t = -5.34$ ,  $p < .001$ ), Wee클래스환경( $t = 3.13$ ,

$p < .01$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변인들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심리적불편감( $\beta = .45$ )이 가장 영향력이 컸고, 사회적낙인( $\beta = -.17$ ), 상담유용성기대( $\beta =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학생-교사에착( $\beta = .12$ )과 Wee클래스환경( $\beta = .12$ )은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갭’ 현상을 심리적불편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확인하였고, Wee클래스 학교상담 경험 유무, 성별(학교유형 포함)에 따라 도움추구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자발적으로 찾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개인요인

(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과 환경요인(학생-교사에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으로 나누어, 개인-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중 먼저 서비스 갭 현상 및 학교상담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결과를 해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불편감을 확인한 결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로 심리적불편감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외모 고민, 진로 선택 및 직업 선택, 학업, 발표 불안 및 시험 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청소년 통계(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에서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로 공부 영역, 외모 영역, 직업 영역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로 심리적불편감을 겪고 있으나,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 설치된 Wee클래스 상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갈 의사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 영역에서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 당시 코로나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점이긴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대면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특수한 상황적 영향이라기보다는 평소 학생들의 Wee클래스에 대한 심리적 거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수의 학생들이 심리적불편감을 겪고 있으나 근거리에서 있는 Wee클래스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낮은, 즉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서비스 갭' 현상이 고등학교 학교상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불편감은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 완화되지 않으면, 이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강연미, 김희수, 2016; 장미경, 2014).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미루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이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심리적불편감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도움추구의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결과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학생들이 제때 전문적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학교 학교상담 현장에서의 서비스 갭 현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학교상담에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고등학교 학교상담 경험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Wee클래스 상담을 경험한 학생들이 사회적낙인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상담유용성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Wee클래스환경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ee클래스 학교상담 만족도를 조사한 김미란(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내재적 동기, 상담자의 지시성·수용성·외적 태도와 상담공간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자의 태도 특성 중에서 '지시성'이 상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관하여 김미란 (2014)은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상담자가 가르쳐주고 조언해 주길 원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기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Wee클래스 상담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상담자가 심리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내담자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기대하는, 즉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고등학교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추후 학교상담에 대한 도움추구의도가 '낮은' 결과는 경험했던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제공되는 상담서비스가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등에 관해 되짚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자로서의 역량이 Wee클래스에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Wee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담 고유 영역과는 별개로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학교상담실 운영 역시 매우 열악한 실태이며(이지연 등, 2015),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타 잡무 증가, 상담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김지정, 이영순, 2014)로 전문상담교사가 고유의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다.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에서의 역량 소진을 가져오게 되며, 상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김미란, 2014), 상담 관련 워크숍이나 사례발표회의 등을 통한 슈퍼비전을 받아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주연, 2019). 종합하면,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건 조성과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요소들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교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장면에서 서비스 갭 현상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자들은 서비스 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이러한 현상을 줄여나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강연미, 김희수, 2016; 이보미, 최한나,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갭을 줄이고 학교상담 도움추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학교상담 경험 유무 외에도 성차를 함께 탐색하여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고등학생들의 성별(학교유형 포함)에 따른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도움추구와 성차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예, 강연미, 김희수, 2016; 신연희, 2004)와 상충하였다. 하지만 주목할 사항은 실제 상담으로의 이행, 즉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 Wee클래스를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도움추구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호적인 경향성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움추구의도가 높은 남자 고등학생들을 학교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잠재적 내담자로 가정했을 때, 어떠한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했는지에 대해 세부 조사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Wee클래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실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움추구 의도가 낮은 여자 고등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지각한 측면들을 살펴 Wee클래스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학교상담 도움추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담 유용성에 대한 높은 기대, 교사와의 강한 애착관계, Wee클래스의 환경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여자 고등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은폐 성향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상담의 특성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상담을 받는 Wee클래스 상담실의 엄격한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독특한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이 학교상담을 요청하기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의 도움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역할갈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예, 박준호, 2008; 안수정, 서영석, 2017). 이러한 설명은 남성들이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남성적 성역할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여도 전문적 도움추구를 회피하게 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연구참여자의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도움추구의도를 낮추게 한 하나의 특성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자면, 남자 고등학생들의 도움추구의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는 데에는 남성다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 선행연구들은 2000년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박준호, 2008)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수정, 서영석, 2017)이기에, 같은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남자 청소년들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상담의 가장 큰 이점은 전학교적인, 체제적인 상담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강진령, 2016; 윤운영, 유금란, 2013). 전교생,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심리교육 등 다양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상담이 가능하며, 일반상담과 달리 직접 상담실을 내방하지 않아도 학교생활 중에 전문상담교사와 자연스러운 관계(라포) 맺음이 가능하여(유정이 등, 2015), 일과 중 학생의 행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고등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해 나가는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학교생활에서 기인하는 점이 많을 수 있다. 이에 학생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학교 장면에서 교사로부터 조기에 관찰될 수 있으며(윤운영, 유금란, 2013)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와의 협조, 문제 사안에 관련

된 학생 간 중재, 또래상담 활용 등 전학교적인 체계적 접근으로, 학교 환경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다(유정이 등, 2015). 이와 같이,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독특성과 학교상담만이 가지는 이점은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학교 장면에서의 청소년의 도움추구를 살펴볼 필요성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학교 장면에서 도움추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인요인(심리적불편감, 상담유용성기대, 자기은폐)과 환경요인(학생-교사에착, 사회적낙인, Wee클래스환경)으로 나누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인-환경요인과 관련된 본 연구 결과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들의 개인요인 중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심리적불편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으면 전문적 도움추구를 요청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예, 신연희, 2004; 오주연, 2019; Kushner & Sher, 1991)와 맥을 같이한다. 심리적불편감을 갖는 것과 개인의 지각은 구분되는 개념인데, Gross와 McMullen(1982)는 도움추구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개인 스스로 신체, 심리, 사회적 상태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정서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점검하는 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Wee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이

심리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관련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평가 도구를 구비하는 등 환경적 지원 또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담유용성기대가 높을수록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유용성기대가 높아지면 도움추구 경향이 높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예, 신연희, 2004; 최병섭 등, 2021)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심리적인 불편감을 겪고 있다고 답한 모든 문제 영역에서 고등학교 내 Wee클래스를 찾아가 도움을 추구할 의도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을 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학교상담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심리적인 불편감을 호소한 문제는 ‘외모 고민’(764명)으로 나타났으나 도움추구의도는 ‘외모 고민’이 가장 낮은 것으로(189명, 24.74%) 나타났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호소한 ‘음주나 흡연 문제’(128명)에 있어서는 도움추구의도가 가장 높게(55명, 42.97%) 나타났다. 이는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중독상담과 같은 특수상담 영역과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외모, 진로 문제와 같은 일반상담 영역에서는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이나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심리적인 불편감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 도움추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

면 보다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외모 고민’과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불편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외모 고민’으로 심리적인 불편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764명 중 여자 고등학생이 411명, 남자 고등학생이 353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으나, 이에 대한 도움추구의도는 여학생의 14.84%(남학생 36.26%)만이 긍정응답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음주 및 흡연 문제’ 호소에 있어서는 남자 고등학생 99명, 여자 고등학생 29명으로 남학생의 수가 더 많았고, 도움추구의도 또한 남학생의 45.45%(여학생 34.48%)가 긍정응답을 하여 남녀 전체 도움추구의도 비율 또한 해당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 영역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도움추구의도 및 상담유용성기대와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 영역에 관하여 전문적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여 상담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고, 상담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관점에서 어떠한 상담이 효과성 있게 지각되는지 학생들과 소통하여 학교상담에 대한 유용성 기대를 높여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환경요인 중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낙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낙인이 높을수록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를 회피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예, 강연미, 김희수, 2016; 오주연, 2019; 조류하, 20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사회적낙인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은폐 성향 역시 고등학교 Wee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상담의 특성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상담을 받는 Wee클래스 상담실의 엄격한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이에 따른 비밀보장의 취약성이, 남들의 시선에 비교적 더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 특히 여자 고등학생들에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도움요청행위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이상균, 2000),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에 긍정응답 18%, 부정응답 82%로 나타났으나 ‘내가 상담을 받는다면 친구들이 그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에는 긍정응답 68.5%, 부정응답 31.5%로 답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상담받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마음이 큼을 알 수 있다. 오주연(2019)의 연구에서도 Wee클래스 상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크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용기 내어 Wee클래스를 방문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사회적낙인은 Wee클래스 재방문을 회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고등학생들)에게 상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것과 사회적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교사 간 애착 안전성이 높을수록 고등학생들이 학교 내 Wee클래스를 찾아가 도움을 구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학교 환경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지적 교육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맺는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이다(김종백, 김남희, 2009).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담임교사의 중요성은 담임교사와의 안전애착이 높을수록 도움추구의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생-교사의 우호적인 애착관계 형성은 지지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이러한 학습풍토는 학생이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예, 이해동, 2020)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과의 안전애착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상담교사를 믿고 찾아가는 도움추구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는 학급별 캠프,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담당 학급의 학생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이해동, 2020). 학생과 담임교사 간 안전애착은 학교상담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

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사회적 지지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Wee클래스환경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고등학교 Wee클래스환경에 대한 좋은 인식이 고등학생들의 Wee클래스 학교상담 도움추구의도를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Wee클래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는 친근한 분위기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제반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학교상담실 환경에 대해 조사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실은 아늑하고 편안한 곳, 눈에 띄지 않는 곳, 자료가 풍부한 곳, 방음이 잘 되는 곳이었다(이선희, 2016). 아주 세세하고 작은 요구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 설계에서부터 학생의 시선에 맞춰 Wee클래스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앞서 사회적낙인이 고등학생들의 도움추구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담의 비밀보장 유지에 적합한 상담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편이성과 더불어 비밀보장에 적합한 구조와 같은 Wee클래스의 물리적 환경이, Wee클래스 학교상담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오히려 이를 경험해 본 학생들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오주연, 2019)는 이에 대한 긴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학교상담에 대한 만족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상담공간과 같은 비언어적,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김미란, 2014). 그 밖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상담실에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심리검사나 프로그램이 있으며, 상담 이외에 책이나 보드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란, 2014).

이처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Wee클래스환경 및 운영을 재점검하고, Wee클래스가 학교 부적응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력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학생 전원에게 심리검사 해석상담을 제공하거나 집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질 높은 학교상담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Wee클래스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Wee클래스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낮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각기 다른 구에 위치한 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 설치된 Wee클래스에서의 상담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 각 학교가 위치한 구나 학교 자체의 특성, 각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태도와 자질, Wee클래스 운영 방식이나 제공되는 상담서비스의 질 등이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서울시 각 구별, 더 광범위하게는 전국

지역별로 속한 세 유형의 학교(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를 모두 선정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외에도 다양한 학교 형태, 전문상담교사 관련 변인, Wee클래스환경 관련 변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의 영향을 통제하는 등 보다 대단위로 정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2차 기관인 Wee센터나 학교 밖의 다양한 공공, 사설 상담센터 등에 대한 현 청소년들의 도움추구의도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기관의 운영체계를 학교상담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학교상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등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교상담 현장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외에 도움추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장연미, 김희수 (2016). 청소년의 전문적 도움추구행동 특성 연구: 도움요청장애요인과 위기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8(2), 237-252.
- 강유선 (2016). 학급풍토와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정서 표현의 유용성 기대와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학생 수준과 학급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령 (2016). 학교상담전문가의 시대적 사명(제4회). *학교상담전문가 자격연수*, 4, 27-38.
- 고현희 (2013). 단위학교 Wee 클래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단위학교를 중

- 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2022.4.14.).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1258>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1).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https://www.kdca.go.kr/yhs/>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김남희, 김종백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김미란 (2014). Wee클래스 이용 청소년의 상담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수 (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또래지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3), 1901-1912.  
김영진 (2013). Wee클래스 운영 실태와 효과적인 운영 방안: 친한 친구 교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유리 (2021).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3(32), 1-48.  
김은하, 박소영, 이예지, 박현 (202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COVID-19)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2(1), 141-163.  
김인숙 (2004). 상담교사와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김지은 (2016).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상담의도와의 관계: 자기은폐,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정, 이영순 (2014).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23-244.  
김진아, 오인수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성취 목표와 학교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397-413.  
김태연, 신호정 (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신뢰와 학교상담 추구 태도의 관계: 정서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6(2), 57-80.  
남숙경, 이상민 (20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집단간 차이 분석: 대상, 성별, 연령,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341-366.  
민들레 (2009). 고등학교의 상담 실태와 상담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호 (2008).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 효과. 연세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민 (2019).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교육논총, 40(3), 1-16.
- 박지윤 (2011). 청소년의 Wee클래스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애 (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와의 친밀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주, 최형아 (2017).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30(2), 51-78.
- 손경진 (2018). 정신적 도움추구태도 척도 (Mental Help Seeking Attitudes Scale; MHSAS) 타당화.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2004).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정민 (2013). Wee 클래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전문상담교사의 인식 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수정, 서영석 (2017).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29-657.
- 양대희 (2010).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지지,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주희 (2018).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상담 추구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신뢰와 교사신뢰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주연 (2019). 중학생의 상담태도와 상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Wee클래스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유정이, 홍지영, 김진희 (2015). 학교상담자가 지각한 학교상담의 효과요인. 아시아교육연구, 16(3), 57-85.
- 윤운영, 유금란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학교상담의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41-262.
- 이건영 (2018). 학생-교사 애착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보미, 최한나 (2015). 중학생의 학교상담요청 결정 과정의 촉진요인 및 방해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23(1), 77-96.
- 이선희 (201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담실태 및 요구분석: 대구광역시 농촌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강영신 (202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22(5), 107-136.

- 이재형, 정진주 (2010). 청주지역 중학교 Wee 클래스의 공간구성 및 이용실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3), 95-102.
- 이지연, 조희연, 이영아 (2015). 중등학교 Wee 클래스 운영의 발전적 방안 연구: 상담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3), 167-175.
- 이지원, 남숙경 (2016).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4), 721-741.
- 이진아 (2018). 고등학교의 상담활성화에 관한 연구: 학생과 교사 비교.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동 (2020). 학생-교사 애착에 따른 학급풍토가 학생의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에 대한 유용성 기대와 자기낙인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2007). 성인애착이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공변량 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수진, 노안영 (2009). 성인 애착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83-1396.
- 임채영, 염동문, 정현태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프로파일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68(2), 213-232.
- 장미경 (2012). 일반청소년과 문제행동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과 도움추구태도.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18.
- 장미경 (2014). 청소년의 도움추구태도가 상담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유형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9), 1-25.
- 장진이 (2001). 자기은폐와 정서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도움추구 태도와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애 (2017). 중학생이 지각한 상담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Wee클래스 상담태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예지 (2022).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수준, 스트레스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31(3), 179-198.
-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 (2016). 상담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 심리적 어려움, 상담관련 경험 및 태도가 대학생의 상담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4(1), 131-150.
- 조류하 (2020). 고등학생의 상담추구의도와 상담추구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낙인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3(3), 283-297.
- 최병섭, 이해동, 이지연 (2021). 학생-교사 애착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자기개방 유용성 기대와 학급풍토의 매개된 조절효과. 교육과학연구, 52(2), 155-177.
-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이석영, 최보미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2021 청소년통계[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389790](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38979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4.1.). 위(Wee)프로

- 젝트연구·지원센터.  
<https://www.wee.go.kr/home/main/main.do>에서  
자료 얻음.
- 홍혜영 (2006).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7(4), 1203-1219.
- Cash, T. F., Begley, P. J., McCown, D. A., &  
Weise, B. C. (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4), 273-27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ane, F. P., & Todd, D. M. (1996). Attitud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for personal problems or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0(4), 45-59.
- Gross, A. E., & McMullen, P. A. (1982). The help  
seeking process. In: V. J. Derlega & J.  
Grzelak (Ed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pp. 305-326). New York: Academic Press.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s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Omarzu, J. (2000). A disclosure model:  
Determining how and when individuals will  
self-disclo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74-185.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 원 고 접 수 일 : 2023. 11.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25.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6. 03.

##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Intention to Seek Help From Wee Class School Counselors: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Jun Hyung Jeun<sup>1)</sup>

Ha Yan An<sup>2)</sup>

<sup>1)</sup>Jeonju office of educati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up>2)</sup>Seoul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This study identified the 'service gap' in high school counseling and examined factors that influence intention to seek help from Wee class school counselors. The analyzed factors were individual, namely psychological distress, counseling usefulness expectations, and self-concealment, and environmental, namely student-teacher attachment, social stigma, and Wee class setting. A total of 891 students at 3 high schools in Seoul responded to a psychological distress scale to identify the types of major difficulties they faced. Their intentions to seek help for reported psychological difficulties were also identified, and the results provided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gaps in high school counseling services. In addition, individual-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ntion to seek help from Wee class school counselors significantly varied by counseling experience and gend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new operation and promotion strategy is needed for the Wee class of the current high school. Psychological distress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intention to seek school counseling followed in order of decreasing influence by social stigma and counseling usefulness expectations. Subsequently, student-teacher attachment and Wee class setting had the same effects. Based on the main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enhancing high school students' intention to seek help from Wee class school counselors and revitalizing school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Wee class, school counseling, help-seeking intention, help-seeking factors, high school students